

제7회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목 차

개 요	03
1. 개회 미사 : 청주교구 사회복지국	11
2. 둘째 날 미사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19
3. 폐막 미사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26
4. 강의 1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반포 10주년 기념 국제 회의 참가 보고 _ 정성환 신부	33
5. 강의 2 : 소셜미디어에 글쓰기 _ 신철민 사무국장	39
6. 워크숍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81

제7회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대회 개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Caritas Committee of the C.B.C.K.

제7회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

1. 대회 방향

- ① '자비의 희년'(2015. 12. 8. ~ 2016. 11. 20.)을 맞이하여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새롭게 인식하고,
- ②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 ③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홍보 패러다임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봉화를 위한 '자비의 선교사(일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심어주고자 함.

2. 대회 명칭과 주제:

- 명칭: “카리타스, 세상과 소통하다(II)”
- 주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¹⁾

3. 대회 일자: 2016년 3월 16일(수) ~ 18일(금), 2박 3일

4. 대회 장소: 속리산 유스타운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소재)

5. 대회 주최: 15개 교구 사회복지회(국)와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공동 주최

6. 참가자 규모: 약 450여 명

1)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에서 제안한 자비의 희년 '영성 피정의 날' 주제



7. 세부 일정 및 내용

첫째 날 : 2016년 3월 16일(수) : 자비를 체험하는 날

- 오후 1시 등록, 접수 및 방배정
- 3시 개회 미사
- 4시 일정 소개: 서창원
- 4시 10분 휴식
- 4시 30분 특강(1) - 정성환 신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반포 10주년 기념 국제 회의 참가 보고
- 6시 저녁 식사
- 7시 30분 떼제기도, 개인 성찰 시간, 고해성사
- 10시 자유시간

둘째 날 : 2016년 3월 17일(목) : ‘Yes I do’, ‘Yes We do’

-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 9시 사람책 도서관
- 말씀 주제: ‘복지 현장에서 체험한 자비의 하느님’
(내 인생에 있어서 체험했던 최고의 하이라이트: 자비의 하느님을 만났을 때)
- 11시 미사
- 12시 단체 사진 촬영①
- 12시 10분 점심 식사
- 오후 1시 30분 특강(2) - 신철민
 ‘홍보 패러다임에 대하여’
- 3시 휴식
- 3시 20분 워크숍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 6시 저녁 식사
- 7시 30분 전체 친교 시간 (진행 임동훈)
- 9시 자유시간



셋째 날 : 2016년 3월 18일(금) : 파견하는 날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

9시 30분 종합 발표

10시 15분 휴식

10시 30분 폐막 미사(주교님 미사 주례)

12시 단체 사진 촬영②

12시 20분 점심 식사

해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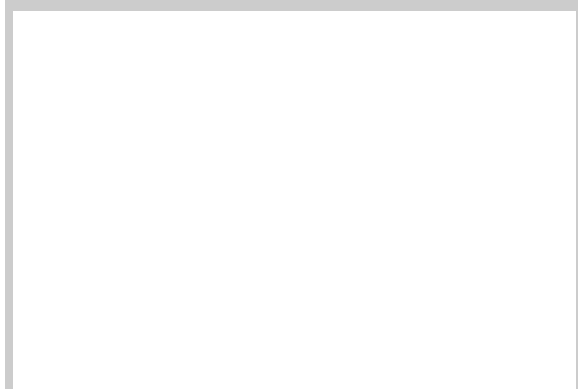
※ 세부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대회 소개





미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Caritas Committee of the C.B.C.K.



개회 미사

청주교구 사회복지국

입당성가

116 주 예수 비리보리

Choral - Bach, Hans Leo Hassler

Larghetto

1. 주 예수 바라 보 라 정 성 된 망 으 로 거 룩 한 머 리 위 에 피 땀 이 흐 르
 2. 만 왕 예 수 왕 인 고 예 수 신 십 면 류 관 이 - 라 야 당 우 신 의 사 언 은 리 리 행 위 에 마 잠 위 로 하 시 - 거 든 시
 3. 주 예 수 상 하 직 할 때 내 맘 에 오 - 시 어 수 난 의 은 행 위 로 써 로 못 해 주 - 시
 4. 이 세 상 하 직 할 때 내 맘 에 오 - 시 어 수 난 의 은 행 위 로 써 로 못 해 주 - 시

며 지 존 한 주 의 몸 에 상 처 가 득 하 다 목 석 과 갈 은 자 야 눈
 들 어 어 영 성 한 가 시 려 관 을 러 어 해 쓰 셴 내 죄 를 회 하 하 연 뉘
 죄 자 비 개 하 신 성 부 깨 데 가 주 소 다 사 안 고 평

몸 도 없 느 나
 어 처 없 지 리
 해 주 고 치 서
 안 쉬 소 리 다

말씀 전례

제1독서

〈하느님께서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의 종들을 구해 내셨다.〉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20.91-92.95

그 무렵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 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나? 이제라도 불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 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 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는 때에 달구는 것보다 일곱 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때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세 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 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답송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
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31-42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

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 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보통 빠르기로



1. 주여 우리는 지금 주님 전에 미약한 이 세 - 계 -
 2. 주님 주신 그 지혜를 주보만 대하러 고니 미정약한 이 세 - 계 -
 3. 몸과 마음 다 하여 향연만 하오니 전 주사역이 세 - 계 -



다
 다 너 그러이 받으 - 사 기 - 빠 - 하 소 서
 서

영성체송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속량되어 죄를 용서받았네.

영성체 성가

167 생명이신 찬상 양식

M. Haydn

Moderato



1. 생 명이 신 찬 상 양 식 이 여 우 리 영 혼 양 육 하 음 소 서
 2. 주 천 주 여 이 자 하 신 주 여 이 성 사 로 축 복 하 음 소 서 영 원
 3. 내 영 혼 이 목 말 라 하 오 니 어 서 오 사 새 생 민 을 주 소 서



생 명 주 - 신 거 룩 하 신 주 여 지 존 하 신 성 사 여



찬 미 - 받 으 - 옴 소 서



115 수난 기억 디디르니

Campra, 이문근 편곡

Andantino



1. 수 난 기 약 다 다 르 - 니 주 예 수 산 에 가 시 어 그 심 증 예 피 땀 흘 - 러 성 부
 2. 무 참 하 게 과 곁 려 가 - 신 거 록 수 한 우 리 주 예 시 어 수 뱀 슬 무 죄 맞 도 다 신 우 발 모 리 주 채 - 며 조 영
 3. 채 찌 곁 과 가 시 들 - 관 - 에 주 예 자 가 피 흘 리 보 아 네 무 죄 하 신 우 리 주 - 님 그 참
 4. 바 보 라 형 제 들 - 아 십 자 가 바 라 보 아 라 무 죄 하 신 우 리 주 - 님 그 참



깨 기 도 하 시 네
 을 받 으 시 도 다
 가 위 로 드 릴 까
 히 죽 으 시 도 다
 우리 죄 를 대 신 하 - 여 수 난 하 고 죽 으 니 우리 들 은 통 회



하 - 여 보 속 과 사 랑 드 리 세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7,3-9

그 무렵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답송

◎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

○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

○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악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



복음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51-59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맞 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신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Thomas Haweis 손복희 작사



1.미 약 하 이 온 우 리 - 제 물 자 비 - 로 이 - 받 아 네 제 - 물 과 - 합
 2.주 님 이 도 주 르 우 리 님 려 위 - 하 여 자 스 비 - 로 이 - 받 아 네 제 - 물 과 - 합
 3.우 리 를 따 르 주 르 우 리 님 려 위 - 하 여 자 스 비 - 로 이 - 받 아 네 제 - 물 과 - 합
 4.나 를 따 르 주 르 우 리 님 려 위 - 하 여 자 스 비 - 로 이 - 받 아 네 제 - 물 과 - 합



하 - 여 서 성 부 - 께 드 - 리 소 서
 생 - 되 시 감 사 - 께 뿐 - 이 외 다
 수 - 난 니 감 사 - 께 뿐 - 이 외 다
 라 - 하 신 생 그 표 - 양 따 - 르 리 다

영성체송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 친아드님마저 아낌없이 내어 주셨으니,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502 주의 빵을 시로 나누세

흑인 영가

D A7 D Bm G D

1. 주 의 빵 을
2. 주 의 의 리
3. 주 의 의 리
4. 주 의 의 리

빵 을
진 기
기 회
의 리

서 로 나 누 세

주 의 빵 을
의 의 리
의 의 리
의 의 리

을 리
분
망

서 로 나 누 세

F#m Bm D A7

주 죄 주 의
의 리
의 리
의 리

님 의
의 리
의 리
의 리

의 계
의 피
의 나
의 자

의 명
의 하
의 라
의 들

을 고
가
을

지 키
주 님
우 리
의

려 하
못 안
켜

하 -
- -
- -
- -

는 따
있
우

자 라
으
면

여 서
니
서

주 진
서
서

의 실
로
로

빵
하
기
회

을
게
분
망

나 - 누
살 - 아
나 - 가
심 - 누
으

세
세
세
세

171 오 기록한 생명의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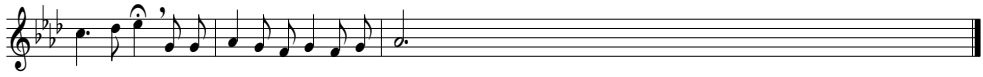
정인상



1. 오 기록 하 신 성 체 생 명 의 샘 우 리 의 구 세 주 여 어
 2. 오 지 존 하 신 성 체 새 빛 이 샘 여 만 민 의 구 원 자 여 어



서 오 소 서 우 리 부 당 하 오 나 주 께 나 아 가 오 - 니 샘 명 의 주 님
 서 오 소 서 주 님 함 께 계 시 면 부 족 함 이 없 으 - 니 샘 명 의 주 님



예 수 여 어 서 우 리 계 임 하 소 서
 예 수 여 어 서 우 리 계 임 하 소 서



파견성가

489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흑인 영가

침통하게

1.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2.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3.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오 - - 오 석양에 밤이 오니 지던 선혈 선혈 선혈
 오 - - 오 석양에 밤이 오니 지던 선혈 선혈 선혈

보았나 매달리신 주님을
 보았나 아파중하신 예수님을

파견 미사

입당성가

490 십자가에 기꺼이

W. Howard Doane

느리지 않게



1. 십자가에	가	가	이	나	를	이	고	시	고	거	기	흘	린	성	혈	무	나	를	씻	이	소	서
2. 십자가에	가	가	이	내	가	떨	고	섰	네	거	기	있	는	구	원	이	내	게	비	주	시	네
3. 십자가로	가	가	이	가	게	하	고	소	서	거	소	받	은	고	생	도	내	게	하	어	소	서
4. 십자가에	가	가	이	의	지	하	고	서	서	주	의	나	라	가	도	복	영	상	머	메	겔	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 세 오르 단강 저 편 에 는 영 원 안 식 있 네



말씀 전례

제1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0,10-13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싸뵘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답송

◎ 곤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웁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웁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삼키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
- 곤경 중에 나 주님 부르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였더니, 당신 성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부르짖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

복음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1-42

그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요르단 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 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였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이분매 작사
이종철 작곡

빠르지 않게

1. 주 여 당 신 종 이 여 기 왔 나 이 다 오 로 지 주 부 님 만 심
2. 주 여 당 신 종 이 여 기 왔 나 이 다 오 로 지 주 부 님 만 심

을 따 르 려 왔 나 - 이 다 신 자 가 를 지 고 여 기
에 오 롯 이 왔 나 - 이 다 하 안 소 특 차 려 여 기

왔 나 이 다 오 로 지 주 부 님 만 심 을 따 르 려 왔 나 이 다 파 아
왔 나 이 다 오 한 평 생 주 님 함 께 살 고 파 왔 나 이 다 파 아

란 풀 밭 에 이 몸 누 여 주 소 서 고 이 쉬 라 물 터

로 나 를 끌 어 주 소 서 주 여 당 신 품 안 에 나 를

받 아 주 소 서 내 실 곳 주 님 의 품 영 원 히 잠 드 렵 니 다

파견성가

39 히니뵈게 히소시

정인상



1성 - 부 여 이 사 람 들 이 신 아 바 지 의 뜻 을 따 라 진 리 위 해 몸 바 치
 2성 - 부 여 내 계 말 기 신 이 사 람 지 의 들 증 거 하 며 당 신 나 위 해 사 몸 하 나 이 하
 3성 - 부 여 사 람 들 에 게 아 바 지 의 들 증 거 하 며 당 신 나 위 해 사 몸 하 나 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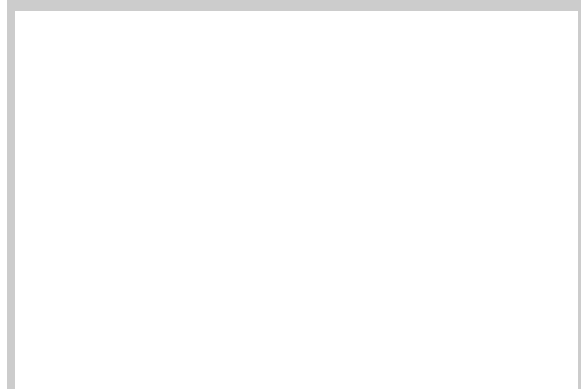


그 나 님 사 람 이 되 게 하 소 서 성 부 나 를 이 - 세 상 에 보 내 심 과 같 -
 고 내 안 에 향 상 계 시 듯 내 생 명 을 다 - 바 쳐 서 사 랑 하 오 리 -



이 나 도 사 도 들 을 - 세 상 상 에 파 견 하 이 음 니 다
 님 모 두 진 아 버 리 지 의 - 생 사 랑 의 을 말 알 겠 씬 하 이 음 니 다
 모 두 아 버 리 지 의 - 생 사 랑 의 을 말 알 겠 씬 하 이 음 니 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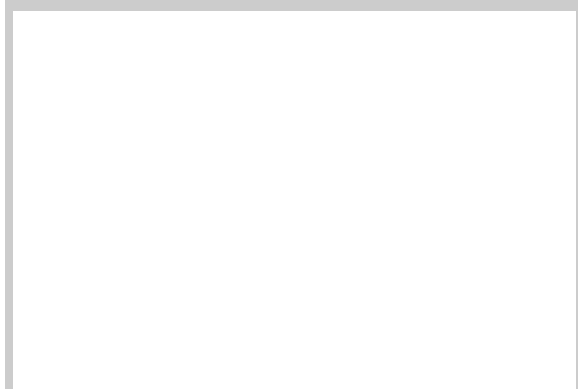
반포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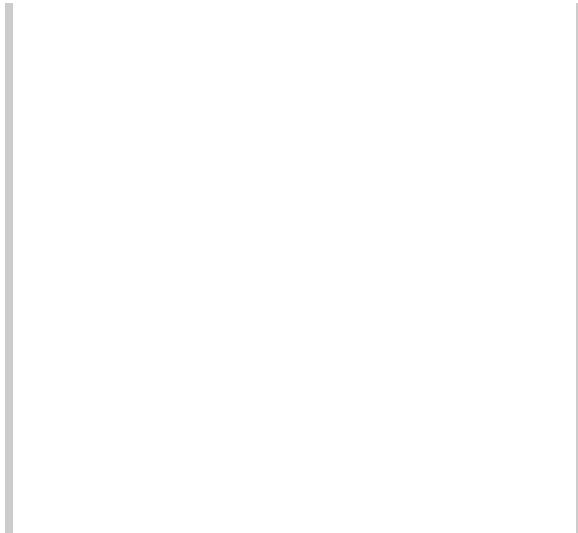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Caritas Committee of the C.B.C.K.



소셜미디어에 글쓰기



신철민 사무국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Caritas Committee of the C.B.C.K.



소셜 미디어에 글쓰기

신철민 사무국장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Q 신철민 선생님! 웹을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A 비전에 따라 실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 이 름 : 신철민
-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dolmin21>
-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dolmin21>
- 트 위 터 : <http://twitter.com/dolmin21>



오늘 나눌 이야기

- 소셜미디어 이해
- 소셜미디어에 글쓰기
 - 글쓰기 분석
 - 벤치마킹
- 글쓰기 전략
 - 여러가지 팁

공감 & 반응



글쓰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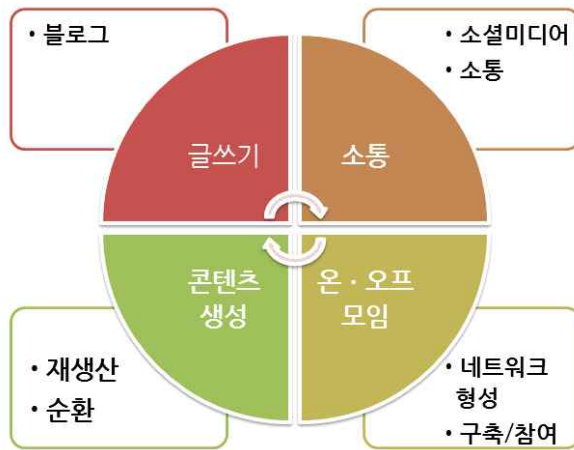


소셜미디어에 왜 글을 쓸까?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SNS의 활성화
- 과거보다 써야 하는 것들(보고서, 기획서, 이메일 등)이 늘어남
- 글쓰기가 업무 주요 능력으로 평가(서울형평가)
- 직장인 자기개발 차원에서 글쓰기
- 노령화시대
- 홍보(알림)
- 소통
- 아무래도 **반응**을 해주기 때문?



소셜미디어
 사회복지사를 위한 소셜미디어학교



집단지성



제임스 서로위키는 Wisdom of Crowds라는 책에서 실험을 통해, 우수한 명의 직감보다는 평범한 여러 명의 직감의 조합이 더 우수한 결과를 만듦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의 요지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집단적 지적 능력을 통해 개체적으로는 미미하게 보이는 박테리아, 동물, 사람의 능력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통한 결정 능력의 다양한 형태로 한 개체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주장
이 분야는 사회학,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에서 연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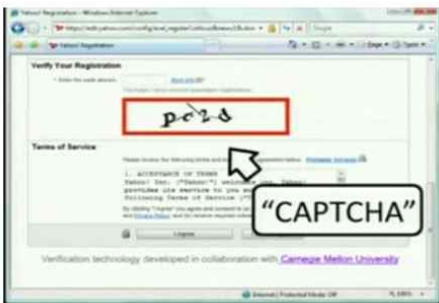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그게 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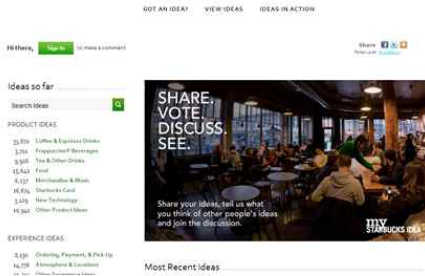


ReCAPCHA



- 스캐닝 된 고문서를 디지털화하는데 리캡차를 활용
- 광학문자인식기술(OCR)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인간의 눈으로 바로잡는 방식
- 스캐닝 된 문자를 컴퓨터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런 리캡차로 제시했을 때 여러 사람이 동일한 단어로 읽어냄
- 캡차 기술을 이런 방식을 진화시킨 게 ReCAPCHA

My Starbucks Idea



- 스타벅스는 아이디어를 통해 상품, 서비스, 고객 몰입 등 세분야에서 총 739개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았고, 그중 480개의 의견 수렴해 실행
- 총65%의 의견 반영
- 외부의 다수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

집단지성 사례



서울시와 Daum이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집단지성
서울시 수해 커뮤니티맵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사례



수해커뮤니티 맵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수해의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나 수해 현장 사진을 위치정보와 함께 제보한 내용답는 방식으로 제작
주거 지역에서 보이는 막힌 배수구를 신청과 수해피해 현장을 제보하면 이에 대한 조치와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사례



집단지성 지식공유 사례:

Flickr Coffee Art

플리커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에 태그를 달고 있음. 이러한 태그는 본인의 사진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타인이 사진을 주제별로 검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비슷한 태그들의 재미 있는 모음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사례



수많은 일반 네티즌,
전문가들이 서로의 질문
을 답변해주는 거대한
집단지성 커뮤니티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사례



우샤히디" (Ushahidi)는 스와
힐리어로 "증언" 또는 "목격"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
다. 우샤히디는
지도 기반으로 문자,
이메일,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로 취합된 정보를 실시간
으로 시각화하는
오픈 소스 플랫폼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사례



집단지성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오마이뉴스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 라는 점. 전문 기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 누구나 오마이뉴스의 눈과 귀가 되어 기사를 쓸 수 있고 시민이 기사를 써서 올리면 편집부가 확인, 검토 과정을 통해 사이트에 게재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사례



아이디어크림 "브랜드 아이디어를 소비자 함께 개발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이라고 소개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집단지성 사례



클라우드펀딩 사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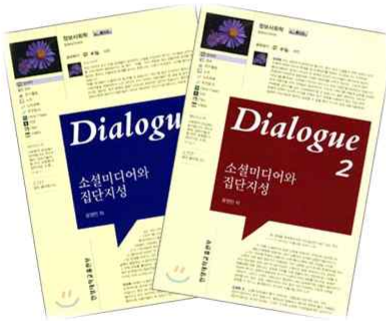
This is True Story,

CoNCreate,

FundU

출처 : <http://changeon.org/15628>

소셜미디어와 집단지성



사회복지 소셜미디어 집단지성



사회복지전문가들에서 주최하는 사회복지 홍보를 말한다 특강은 12월 3일에 진행합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소셜미디어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홍보매뉴얼
자료집을 발간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



web
Social Welfare
person



- 소셜미디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과 의견, 경험, 관점 등
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툴과
미디어 플랫폼

(위키백과사전 참조)

다큐프라임 - 링크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



기적의 책꽂이



-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좋은 책으로 구성된 책꽂이를 선물
- 책을 모으는 일부부터 기부 받을 곳을 선정하고 책을 전달하는 일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 프로젝트가 시즌 4까지 진행

기적의 책꽂이



- 지난 1년여 동안 책 10만 권이 넘는 책을 모아 전국 80여 곳에 전달했다(시즌1 3만5천권/ 시즌2 5만 5천권/ 시즌 3 2만 권)



10월의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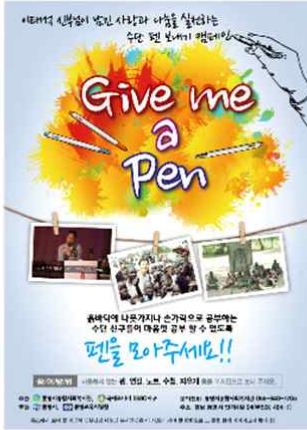


- “10월의 하늘”은 전국 중소도시의 도서관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도서관 과학 강연’ 행사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

사회복지영역

Give me a Pen



이태석 신부님이 남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수단 펜 보내기 캠페인

1004 Day



- 1004명의 기도 후원
- 10월 04일 모임
- 준비 모임
- 그를 통해 그룹이 만들어짐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

개인 활용 사례

복만이네
만화방 이야기



복만이네 만화방 이야기



상상도서관



-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
사람들과 아이들 위해
서 본인의 집 1층에 지
원을 받지 않는 등록 도
서관 운영

미디어에 대한 이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글쓰기 전략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



일상의 소통



카페베네
커피빙수



일상의 소통



- 계절 발간
- 계절 편지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
#눈부신복지세상그리기

장애인식개선



좋아요 취소 댓글 달기 공유하기 112개 7개 4월 14일 오후



혼자만의 글쓰기 전략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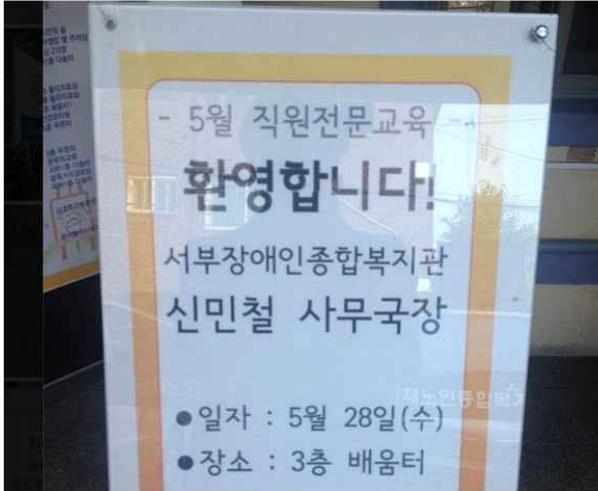
일상의 글쓰기(반응)



- 좋아요 취소 댓글 달기 알림 그만 받기 공유하기
- ♡ 회원님, 김영신님, 강명숙님, Jintack Sok님 외 170명이 좋아합니다.
- 🗨️ 이전 댓글 보기 89개 중 6개
- 🕒 **선행면** 이형정 편안함 밥 보내세요~
2월 27일 오후 10:58 · 좋아요
 - 🕒 **선행면** Kyoung Soon Jang 가랑하면 보내드리고 싶네요^^
2월 27일 오후 10:59 · 좋아요 · ♡ 1
 - 👤 **ChangSik Oh** 행복이 느껴집니다^^
2월 28일 오전 8:35 · 좋아요 취소 · ♡ 1
 - 🕒 **선행면** ChangSik Oh 행복하세요^^
2월 28일 오전 9:01 · 좋아요
 - 👤 **Sung Hee Lim** 톰필사건으로감추ㅋㅋ
2월 28일 오후 2:36 · 좋아요 취소 · ♡ 1
 - 🕒 **선행면** Sung Hee Lim 미장 당합니다^^
2월 28일 오후 2:57 · 좋아요
 - 🕒 댓글을 입력하세요



일상의 글쓰기(반응)



감성에 물주기

똑같은
시간을
다른
시선으로
느끼고
싶다면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시다.

전진호 선생님 日



연철의 대사

전쟁 에서는 칼을 쓰지만
정치에선 명분을 사용하
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글쓰기 전략 정답이 있을까요?

소셜미디어 운영 벤치마킹



- 양원석(masilbul)
- 콘텐츠 : 생태체계관점의 글쓰기, 사회복지 이슈(한사협, 평가혁신), 일상, 푸른복지컨퍼런스, 책사넛
- 사회복지 칼럼가?



문장을 깔끔하게 쓰기 위한 9가지 팁



1. 지긋지긋한 접속사, '및'
2. '~하도록 한다'식 서술어
3. '~대하여' 혹은 '~관하여'의 남발
4. '~할 수 있다'라는 서술어
5. '~하고 있다'라는 서술어
6. '~시킨다'라는 서술어
7. 명사형의 나열
8. '~성(性)'이란 명사
9. 기타

출처 : <http://www.infuture.kr/338>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적 글쓰기





얼마 전 산티아고 해외연수 중
이었던 사회복지사 연수팀이 연
수 기간 중 '줬다뺏는 기초연금'
과 '세월호' 피켓을 배낭에 달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할지 아직 저 안에 40만 명이나 갇혀있는 목숨이...

배낭에 피켓을 달고 걷는 활동
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세월호'와 '줬다뺏는' 기초연금
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 물
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고 답하니 역시 그렇군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사회변화를 위해 알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쓰기 사회복지사가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사회적 글쓰기의 정의



사회적 글쓰기를 처음 기획하신 양희송선생님은

사적 글쓰기(private writing)와 공적 글쓰기(public writing)의 중간 짬이라고 하십니다.



사적 글쓰기와 공적 글쓰기의 중간 지점

소셜미디어에 글쓰기

한국사회복지사업회장 100% 투표하기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업회장 투표 100% 참여



투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권리입니다



세빛사 - 사회복지사 1인 시위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에 기초한 - 복지국가 대한민국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촛불문화제 관련 콘텐츠

3월 31일 저녁 8시, 청계광장 돌머리에서 15번째 복지국가촛불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제는 얼마전에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지난 겨울 죽음의 위험과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번 촛불에는 사회복지사 동아리 문들의 참여가 있으면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함께 오셔서 촛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더 보기 ->
고한철님 외 14명과 함께



좋아요 취소 댓글 달기 알림 그만 받기 호보 공유하기 116개 10개 5개

73



소셜 미디어에 글쓰기

사회복지목적세 도입 캠페인



기초연금 정책 개선



기초연금 개정 활동



-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7월 25일에 기초연금 20만원 받은 대신에 8월 20일 받는 수급비에서 20만원이 삭감
- 3차 서울, 부산, 호남지역 사회복지사 645명 참여

짚다뺐는 기초연금 개선

'빈곤노인 기초연금 배제'에 대한 사회복지사 1차 성명

짚다뺐는 기초연금, 박 대통령의 진심인가요?

7년째 시행되는 기초연금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층 배제를 못 받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면서 생계급여 50만 원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왕남복지 기초연금 철학에 대하여 우리 사회복지사는 박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질의

-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대통령이 임명하셨나요?
- 대통령이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층에게 배제를 지급하지 않느냐는 것을 알고 안하나요?
- 300만 140여에서 '가난한 노인층에 대한 배제'를 통해 배제된 노인들 "70% 노년층에 포함된다" 정말 왜 배제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에 공개토론회 개최

- 수급노인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상황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보건복지부에 개최해주세요.
- 도별로 시군구별 차등 지급(생계급여) 기준 고집 그만두고 일하는 300만 140여 노인들 포함시켜야 가능한 공개토론회 개최해주세요.

우리 사회복지사의 주장

1. 짚다뺐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용감하라!
2. 보건복지부는 짚다뺐는 기초연금 공개토론회에 적극 대응하라!
3. 정부는 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도록 시행령 제도를 개정하라!

2015년 7월 14일
빈곤노인 기초연금을 지키는 388명의 사회복지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위원회 활동

빈곤노인 기초연금 사수옹호대회

개일 오전 10시 00분 국민회관

이제는 박스 풀
안중는가 했다...
짚다뺐는 기초연금

짚다뺐는 기초연금 촛불대회

개일 오전 10시 00분 국민회관





세월호 가족과 304명 사회복지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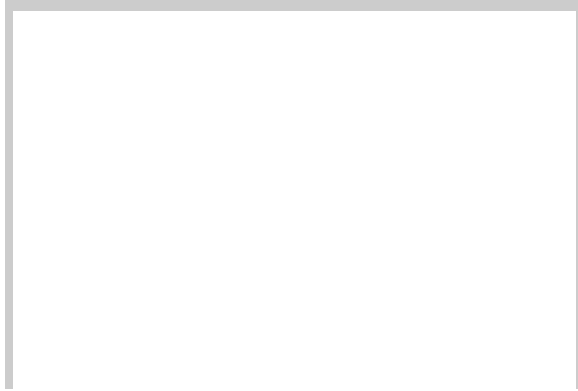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후원



세상을 바꾸는 후원







워크숍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Caritas Committee of the C.B.C.K.



워크숍

워크숍

박대규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제7회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대회 “카리타스, 세상과 소통하다” (Ⅱ)

워크숍 worksheet

2016. 3. 17(목) 15:20-18:00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박대규

83


워크숍

Agenda

- Opening
- 사회적 참여(social action)의 경험
- 사회적 참여(social action) 행위와 작용의 이슈
- 사회적 참여(social action)를 위한 실천사항
- Debriefing

2



■ 사회적 참여(social action)의 경험

❖ 개인, 가정, 신앙생활, 일터 등에서...



3

■ 사회적 참여(social action) 행위의 이슈

■ 사회적 참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 왜 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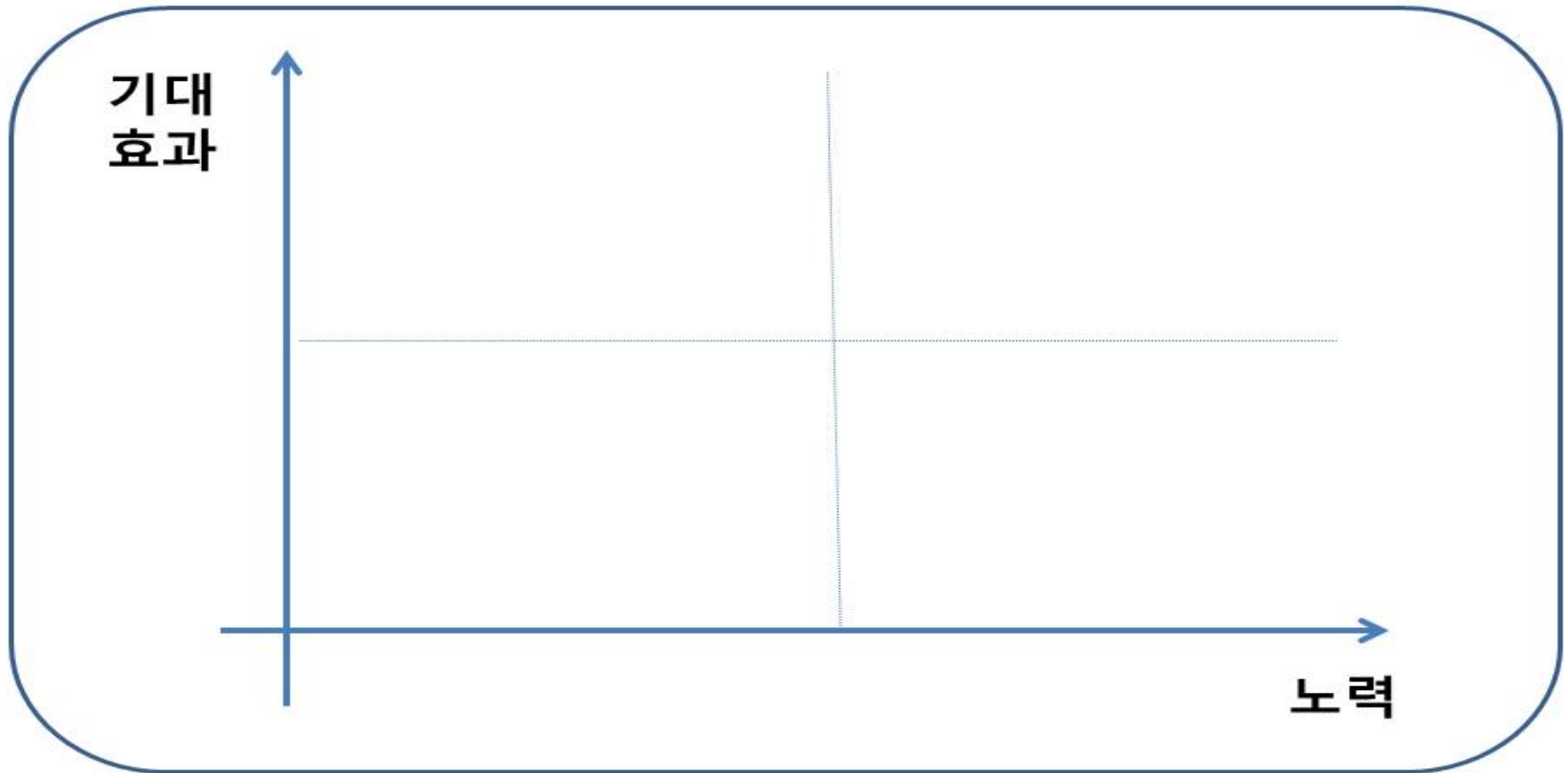
4



■ 사회적 참여(social action) 작용의 이슈

- 사회적 참여란 무엇인가?
- 왜 필요한가?
-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사회적 참여(social action)를 위한 실천사항



6

■ Debriefing

오늘 배운 것	
오늘 과정을 통해 느낀 것	
오늘 과정이 나에게 주는 의미	
오늘 과정을 실제로 적용할 것	